

情報文化 광장

통신변화 화보로

체신부는 국내 통신의 변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컬러화보 「오늘의 한국 통신 -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를 발간했다.

이 화보는 우리 나라의 근대 우편 업무가 시작된 188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통신 분야를 총망라하고 있다.



생활정보센터가 된 우체국

지역의 생활정보센터로 탈바꿈한 우체국은 ▲민원우편서비스 ▲금융취급 ▲특급우편 ▲우편물 방문접수 ▲지방특산물주문 등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이어 이번에는 설치된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연극·음악회·스포츠 게임 일정·농수산물가격정보·관광·기상정보 등 각종 생활정보의 제공을 추가 실시하고 있다.



▲ 전산화의 진전으로 우체국이 생활정보서비스 제공 기능도 갖게 되었다.

吳明 체신부장관 留任

지난 2월 19일 제6공화국 출범에 따른 組閣에서 吳明 체신부장관이 유임됨으로써 통신선진화 및 올림픽 통신서비스의 구축에 일관성과 계속성이 더욱 확보되게 했다.



▲吳 明 체신부장관

정보문화센터 발족



▲ 吳明 체신부장관 (왼쪽) 과 李龍兪 정보문화센터 회장이 현판하고 있다.

정보문화 범국민 확산운동을 추진하게 될 정보문화센터가 발족했다.

기존의 정보통신 훈련센터를 모태로 확대 개편된 정보문화센터는 2000년대 한국의 경제·사회 선진화를 위한 공감대 조성과 원숙한 정보화사회에 대비, 국민교육훈련사업·학술활동·미래사회 전시관 운영·컴퓨터통신 무료교육·21세기 정책을 위한 백서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센터는 정보문화협의회를 두어 새로운 사회에 대한 바람직한 미래상의 모색과 홍보를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